

+미사시간
 주 일: 11:00 AM
 화요일: 7:30 PM
 목요일: 10:00 AM (교육관)

+고해성사
 매 미사 30분전

+예비자교리
 주일 10:00 AM

캔사스 한인 천주교회

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

9130 Pflumm Rd. Lenexa, KS 66215
 (913)563-7896 www.kkccatholic.org
 나자렛 교육관: 8901 Haskins St. Lenexa, KS 66215
 주보 편집 : 김대연 요셉 moss0106@gmail.com

주임신부 홍진 베드로
 M: 913.912.2574
 hongjhin@daum.net

회장 이우석 프란치스코
 M: 816.616.0033

재무 김병철 베네딕도
 M: 913.710.0770



★오늘의 전례

오늘은 연중 제20주일입니다. 생명의 하느님께서 거룩한 오늘, 우리를 하느님의 빛으로 삼아 이 성찬에 불러 모으셨습니다. 세상의 교회가 부활의 복된 희망을 노래하고 하늘 나라에서 축제의 잔치상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합니다.

★그림 묵상

나 자신보다 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

나 자신보다 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게 되는 주일입니다. 이 놀라운 성체성사의 신비는 인간의 머리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. 예수님의 사랑의 제사는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한없는 사랑의 성사에 초대받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요.

정미연 소화대레사

제1 독서: 잠언의 말씀입니다. 9,1-6 <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술을 마셔라.>



- ◎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.
-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,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.
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,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. ◎
- 주님을 경외하여라, 주님의 성도들아.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아쉬움 없으리라.
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,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. ◎
- 아이들아, 어서 와 내 말을 들어라. 주님 경외를 가르쳐 주리라.
 삶을 즐기고 복을 누리려, 장수를 바라는 이 누구인가? ◎
- 네 혀는 악을 조심하고, 네 입술은 거짓을 삼가라.
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, 평화를 찾고 또 찾아라. ◎


제2 독서: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. 5,15-20 <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.>

복음환호송: ◎ 알렐루야.

- 주님이 말씀하신다.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. ◎


복음: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6,51-58 <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.>

공동체 소식



연중 제20주일

하느님,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보화를 마련하셨으니
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시어 언제나 어디서나
하느님을 오롯이 사랑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참행복을 누리게 하소서.



■ 오늘은 '연중 제20주일' 입니다.

■ 이번 주간의 성인

- 8/20(월) : 성 베르나르도 아바스 학자 기념일
- 8/21(화) : 성 비오 10세 교황 기념일
- 8/22(수) :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
- 8/24(금) :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

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 안내

- 안내 : 1900년 무렵부터 마리아께 '여왕' 의 영예가 주어 져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다. 1925년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 일이 '그리스도왕 대축일' 로 정해지면서 이러한 요청은 더욱 증가하였다. 이에 따라 1954년 비오 12세 교황은 마리아께서 여왕이심을 선언하고 해마다 5월 31일에 그 축일을 지내도록 하였다. 그 뒤 로마 전례력의 개정에 따라, 성모 승천 대축일 뒤로 옮겼으며, 축일 이름도 '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' 로 바꾸었다. 이날 교회는 성모 승천의 영광을 거듭 확인하며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도구가 되신 것을 기린다.

■ 새로 부임하실 신부님을 맞이하는 지향으로 매일 기도 바랍니다.

■ 주일미사 참례와 교무금 납부는 신앙생활의 의무입니다.

■ 캔사스대교구 'Archbishop' s Call to Share' 에 많은 참여바랍니다.

- 내용 :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나눔을 위한 모금에 많은 참여바랍니다.
- 참여방법 : 교구홈페이지 메뉴-RESPONDING(<https://www.calltoshare.org/>)

■ 전례 성가

시 작	예 물	성 체	파 견
25	211	166	31

■ 주일미사 복사

	향복사	시종복사
금 주	김정원 안젤라	김지안 요한
차 주	정예찬 미카엘	김정훈 로베르트

■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

	해설자	제1독서
		제2독서
금 주	김주연 세실리아	박태주 로마노
		김명희 리드비나
차 주	김명은 안젤라	김정원 베드로
		김말자 세실리아

■ 애찬 봉사자

금 주	김경희, 김인자, 안혜진
차 주	김명은, 한춘희, 최선윤

■ 헌금 봉사자

금 주	김대연 요셉, 홍순익 마르티노
차 주	이내익 베드로, 박태주 로마노

■ 우리들의 정성

	영성체	헌금	교무금
8/12	30명	-달러	-달러
(총 -세대)			